

# 【韓国昔話】カササギの恩返し 은혜 값은 까지

## 場面 1 へびに食べられそうになるカササギを見つけたソン비

### 장면 1 뱀에게 잡아먹히려는 까치를 보게 된 선비

옛날 옛적,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을 걷어가는 중에 갑자기 까치의 울음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나무 위를 보니 큰 뱀이 까치 둥지에서 새끼 까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고 어미 까치는 울면서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 場面 2 矢でへびを退治するソン비

### 장면 2 활로 뱀을 물리치는 선비

까치가 가여워진 선비는 갖고 있던 화살을 꺼내어 뱀을 향해 쏘았습니다.

화살은 정통으로 뱀의 몸에 꽂혔고 뱀은 힘없이 나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새끼 까치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선비는 가던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서둘러 길을 갔지만 산을 넘지 못하고 어느 틈에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 場面 3 暗くなった山の中で道に迷ったソン비

### 장면 3 어두워진 산속에서 길을 잃은 선비

선비는 잘 곳을 찾아 헤매다가 집 한 채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깊은 산속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다니? 여하튼 다행이구나”

선비는 “누구 계시오? 산속에서 길을 잃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소?”

하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스르륵 문이 열리고 젊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 場面 4 大きなへびに体をぐるぐる巻かれて眠りから覚めたソン비

### 장면 4 커다란 뱀에게 몸을 둘둘 말린 채로 잠에서 깬 선비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선비는 여인이 차려준 진수성찬을 맛있게 먹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피곤해서인지 금세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는 도중에 숨이 막히고 온몸이 답답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앞에 커다란 뱀이 혀를 낼름거리며 선비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으아악~ 넌 누구냐.”

## 場面 5 夫を殺したソンビに復讐しようとするヘビ

### 장면 5 남편을 해친 선비에게 복수하려는 뱀

“네가 낮에 활로 쏘아 죽인 뱀은 내 남편이다. 그 원수를 갚기 위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다만 새끼 까치들이 불쌍해서 구해준 것 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 좋다. 이 산속에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절이 있다. 날이 밝기 전에 그 절에 있는 종을 세 번 울리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너를 살려주겠다!”

“아니, 이런 깊은 산속에서 누가 종을 울린다는 말입니까.” 선비는 낙담하였습니다.

## 場面 6 鐘が鳴り約束通り消えていくヘビ

### 장면 6 종을 울리고 약속대로 사라지는 뱀

시간이 흘러 등이 틀 무렵 멀리서 땡땡땡하고 종소리가 세 번 울려 퍼졌습니다.

뱀은 “이럴수가. 분하다. 하지만 하늘의 뜻이니 할 수 없구나”하고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 場面 7 鐘の前で血を流して倒れているカササギたち

### 장면 7 종 앞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까치들

선비는 바로 절로 달려가보았습니다.

종 앞에는 까치들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땅에 떨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새끼를 살려준 선비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까치들이 머리로 종을 쳐서 울린 것이었습니다.

## 場面 8 カササギたちのお墓の前で冥福を祈るソンビ

### 장면 8 까치들의 무덤 앞에서 명복을 비는 선비

선비는 까치들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고맙다. 까치야! 너희들이 내 목숨을 구했구나!”

과거시험에 합격한 선비는 그 후로도 까치의 무덤을 찾아 명복을 빌어주며 까치의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하였습니다.